



국민 절반 이상 “보건의료제도 변화의 필요성 느껴”

보건복지부, ‘2017년도 의료서비스경험조사’ 결과 발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전국 5천 가구의 15세 이상 가구원(1만1,09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 의료서비스경험조사」에 의하면, ‘의료비 지원, 병원 이용 접근성 개선 등 보건의료제도가 변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응답자의 절반을 넘는 57.4%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필요시 건강보험료를 추가적으로 지불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응답자의 56.9%(찬성 28.1%, 보통 28.8%)가 부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외래 진료를 받은 국민 10명 중 8명은 ‘의사(83.2%)와 간호사(86.6%)의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번 조사는 보건복지부가 ‘사람 중심의 보건의료제도’를 강조하는 국제사회 흐름에 부응하고, ‘환자 위주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 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2017년 10월 10일~11월 3일 동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협력으로 실시하였다.

해당 기간 동안 병의원, 한방병의원, 치과병의원 등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외래 진료(67.9%)를 받았거나 입원(5.6%)을 경험한 비율은 68.6%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의 경우, 10명 중 9명이 외래 진료를

목적으로 병원을 찾는 등 20대 이후부터는 나이가 많을수록 의료서비스 이용률이 높아졌다.

지역별로는 상대적으로 노인인구의 비중이 높은 읍·면 지역(68.4%) 거주자가 동지역(67.7%)보다 외래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은(중복응답), ‘가깝거나(40.7%)’ ‘늘 이용해서 익숙한(29.0%)’ 곳을 주요 이유로 선택하였고, 다음은 ‘치료효과가 좋아서(23.8%)’, ‘주변 권유(20.4%)’ 등의 순으로 방문하였다.

(외래 진료) 외래 의료서비스의 경우, 응답자의 90.9%가 희망하는 날짜에 진료를 받았고, 외래진료를 받기 위해 기다린 기간*은 평균 1.4일로 동(1.3일)과 읍·면(1.6일) 등 지역 간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다만, 의료보장유형별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1.4일을 대기하는 반면, 의료급여 수급자는 3일을 기다리는 것으로 집계되어 다소 차이를 보였다.

한편, 진료 당일, 병원에서 대기한 시간은 접수 후 평균 20.8분으로, 병원(평균 26.4분)이 의원(평균 18.9분)보다 7분 이상 더 기다린 것으로 조사되었고, 대기시간 10분 이내까지는 환자의 70% 이상이 긍정적으로 느끼지만, 10분을 초과하는 순간부터는, ‘대기시간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절반 이하로 현저히 감소하였다.

응답자의 68.8%는 본인이 원하는 날짜에 입원하였으며, 입원 환자의 예약 후 대기기간은 평균 3.1일로 읍·면지역(4.3일)이 동지역(2.7일) 보다 하루 이상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담당 의사의 태도 및 서비스에 대해 외래 진료를 받은 응답자의 83.2%가 긍정적인 느낌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외래 진료를 위해 이용한 의료기관이 ‘정결했다’고 평가하는 사람은 90.8%인 반면, 접수, 수납 등 행정 부서의 서비스 만족도는 73.5%로 낮게 나타나 개선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또한, 본인 또는 다른 환자의 질병명 등 사적 정보가 예기치 않게 공개되는 경우 등을 고려했을 때, 사생활이 잘 보호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중도 74.2%에 그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외래진료 시, ‘약에 대한 부작용’을 경험한 비율은 7.7%, ‘감염에 대한 불안감’을 느낀 경우는 7.0%로 나타났다.

또한, 본인 또는 다른 환자의 질병명 등 사적 정보가 예기치 않게 공개되는 경우 등을 고려했을 때, 사생활이 잘 보호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중도 74.2%에 그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외래진료 시, ‘약에 대한 부작용’을 경험한 비율은 7.7%, ‘감염에 대한 불안감’을 느낀 경우는 7.0%로 나타났다.

‘병의원 이용 접근성, 건강보험 및 의료비 지원, 의료인력 및 시설 등을 포함하는 보건의료제도’에 대해 응답자의 57.4%가 ‘변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지난 1년 간 만성질환으로 병원 진료외래 또는 입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 비율은 23.0%이며, 주요 질병은 고혈압 13.7%, 당뇨병 6.1%, 관절염 4.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 10명 중 한명이 진료나 치료를 포기(12.1%)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 행정수도 개헌 염원 범충청권 결의대회 개최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 25일 청사 내 대강당에서 이춘희 세종시장과 이재관 대전시장 권한대행, 이상선 충북 정무부지사, 윤원철 충남 정무부지사를 비롯,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이상민 의원과 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수도 개헌을 염원하는 ‘범충청권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국민의 기대가 큰 만큼, 충청권 민·관·정이 함께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뜻과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개정된 행복도시법이 시행되는 날이라는 의미를 담았다.

정세균 의장 “지방권한 확대하돼 반드시 책임 수반”

2018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서 기초 발제

정세균<사진> 국회의장은 25일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 중인 ‘2018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에 참석하였다. 정 의장은 이날 열린 정책감담회에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주제로 기초 발제를 했다.

정 의장은 지금의 대한민국은 정치적, 경제적인 어려움과 저출산 고령화로 대표되는 사회적 어려움, 북핵문제와 외교문제, 최근 발생한 지진 등 환경적 어려움 등으로 매우 위태로운 상태라고 진단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이라는 시대정신을 담은 개헌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또한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개헌을 위해서는 △국민에 의한 개헌

△3권 분립과 지방분권, 그리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미래지향적 개헌 △개헌의 일정과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국민의 참여가 보장되는 열린개헌 등 개헌 추진의 3대 원칙을 제시했다.

정 의장은 이어 지방분권의 쟁점과 과제에 대해 발제를 이어갔다. 정 의장은 지방분권의 3가지 핵심쟁점으로 정치, 행정, 재정 분권을 꼽으며 “분권을 통해 지방의 권한을 확대하되 반드시 책임이 수반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끝으로 “현재 국회의 분권형 개헌 노력과 더불어 정부도 강력한 지방분권을 목표로 삼고 있다”면서 “국회와 정부가 분



권과 균형발전의 일치된 방향으로 개헌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반드시 좋은 결실을 맺도록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한다”라면서 발제를 마쳤다.

“2018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는 대통령직속 지방자

백혈병 · 소아암 환우들 위해
박하음 학생, 모발기부 ‘눈길’

세종시 한 초등학생이 자신의 긴 머리카락을 백혈병 소아암 어린이들을 위해 기부한 사연이 알려져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25일 세종도담초등학교에 따르면 최근 3학년 카랑반에 재학 중인 박하음(9) 학생이 2년 동안 정성껏 기른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 (사)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에 기증했다.

모발기부에 참여한 박 양은 한 연예인의 모발기부 소식을 접한 뒤 자신도 모발기부에 동참하게 됐다고 전했다.

박하음 학생은 “방송에서 소아

암 어린이들이 머리카락이 없어 생활한다는 것을 보고 모발기부를 결심했다”면서 “머리가 길어서 불편하다는 생각보다는 좋은 일에 쓰일 것이라고 생각하니 뿌듯했다”고 말했다.

박 양이 기부한 모발은 백혈병 · 소아암 어린이들을 위한 가발 제작에 쓰일 예정이다.

송병배 기자

<사>
2018년 새해 무술년(戊戌年)을 맞아 대전투데이 전 직원 신년교례회를 개최합니다.
▲일시: 2018년 1월 26일(금) 오전 11시
▲장소: 대전투데이 본사 회의실

이정복기자

이정복기자

수리산 비단목
마음은 자연을 따릅니다
금산군

“최상의 치안서비스 제공... 따뜻하고 든든한 경찰서 만들 터”

태안경찰서 김영일 서장

충남태안군 고남면에서 태어나 경찰 입문 26년 만에 고향인 태안경찰서 초대 서장으로 부임한 김영일 서장을 서면으로 만나 보았다. 김 서장은 대학은 부산에 있는 국립 한국해양대학교를 졸업했으며, 경찰에 뜻을 두어 1991년에 경찰간부 후보생 제39기로 경찰에 입문한 인물이다. 충남경찰청 505전경대장(1998년), 공주경찰서 수사과장(2001년), 보령경찰서 수사과장(2003년), 서산경찰서 생활안전과장(2008년), 충남경찰청 교통안전계장(2010년), 감찰계장(2014년) 등 충청권에서 중요한 요직을 담당했다. 2016년 총경으로 승진하여 충남경찰청 홍보담당관을 역임 후 태안경찰서 준비단장으로 명받아 태안경찰서 준공까지 그의 땀이 묻어 있는 이곳에 초대 서장으로 부임했다.



▲태안경찰서 초대 경찰서장 부임 소감
61년 만에 다시 문을 연 충남 태안경찰서에서 새로운 동료들과 새로운 건물에서 같이 근무하게 되어 참 좋다고 밝혔다. 특히, 이곳 태안은 제가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꿈을 키웠던 곳이라 엄마의 품속 같다고 말했다. 그래서 이곳에서 근무한 기간은 제 인생에서 결코 잊을 수 없고 무한한 영광의 시간으로 기억되고 있다고 한다.

그렇지만 고향에서 초대 서장으로 근무하는 것은 처신에 어려움이 있고 같이 근무하는 동료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의 눈길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다. 그러나 태안경찰서 동료들과 함께 힘을 합쳐 오로지 주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헌신하겠다는 마음 하나면 두려울 것이 없다고 본다. 태안에 연간 1천20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등 치안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나, 전 직원과 합심해 최상의 치안서비스를 제



공하는 등 든든하고 따뜻한 태안경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피력 했다.

▲태안경찰서는 서장에게 어떠한 곳인가.
태안은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으로 저에게 특별한 곳이다. 경찰생활을 하면서 “꼭 한번쯤은 고향인 태안에 와서 치안을 담당해보아야지”라는 소박한 꿈을 갖고 있었는데, 이렇게 태안경찰서 초대 서장으로 그 꿈을 이룰 수 있게 되어 큰 영광이라고 생각한다고 웃음을 보이기도 했다. 태안에 거주하는 모든 분들은 제 가족과 다름이 없다. 경찰서로 들어오는 사건 하나, 민원 하나 모두 제 가족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세심하게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태안경찰서는 168명의 경찰관이 경무과, 생활안전과, 수사과, 경비교통과, 정보보안과 등 5개 과와 지구대 1, 파출소 5개소를 운영하며 경찰관 1인당 주민 333명에게 최상의 치안서비스를 펼치고

있다고 자랑 했다. ▲태안 치안의 특별한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의 치안목표는 주민의 안전과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태안주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치안행정을 펼쳐 나갈 것이다. 이제부터 경찰서가 가까이 있는 만큼, 지역 주민에게 다가가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경찰에게 무엇을 바라는지? 무엇을 불편해하고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는지를 미리 진단하여 해결해주는 능동적인 태안경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우리 태안지역은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서 특별한 치안여건을 가지고 있다. 계절별, 지역별로 차별화된 주민 맞춤형 치안활동을 전개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 따뜻하고 정성스럽게 주민을 대하고 한편으로는 경찰의 존재감을 느낄 수 있는 치안활동을 펼칠 때 주민들이 만족하

고 우리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낼 것이라고 생각한다. ▲경찰관으로 근무 중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은. 수사분야에서 10여년 근무하면서 억울한 피해자를 대신하여 범인을 검거하고 피해를 회복시켜 주었던 일인데 경찰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하기에 언급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그런데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2005년 충남경찰청 광역수사대 근무시절 경찰 수사권 문제가 큰 이슈로 떠오를 때 검사와 생각의 차이를 피의자를 검사실로 데려오라는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인권옹호 직무방해죄”로 검찰이 저를 기소하여 재판을 받을 때 변호사비를 전국 경찰관들이 십시일반 모아 대법원, 헌법재판소까지 가는 동안 변호사비 걱정을 하지 않았으며, 전국 경찰관들이 응원을 해주던 일이 가장 큰 기억으로 남아 있다고 회고했다. 그때 대법원까지 가서 자격정지 6월

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아쉬운 판결이었다. 요즘 수사권 문제관련 청와대 발표와 언론의 보도를 보면서 그때 생각이 많이 난다. ▲태안군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태안경찰서 슬로건이 “주민과 함께하는 희망의 태안경찰”이다. 주민이 꿈꾸는 행복은 안전 없이는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 희망은 꿈을 이룰 수 있는 기본 바탕입니다. 태안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저희 태안경찰도 발 벗고 나서겠다. 태안 주민 여러분도 저희 경찰과 한마음 한뜻이 되어 “안전한 태안”의 희망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태안경찰서장은 2018년 무술년 태안군민 모두가 행복한 한해가 되기를 소망한다며 환하게 웃는 모습에 6만3천 군민의 치안을 담당하는 최고 책임자임을 느끼게 했다. 태안=김정환기자

겨울공주 경남축제
불타는밤 뜨거운공주
2018. 2. 1(목)~2. 4(일)
공주산성시장문화공원
www.gwangjupark.com

지난해 지방세원 발굴로 76억 추징

천안시, 올해도 자주재원 확충과 기업친화형 세무조사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구현

천안시는 지난해 한 해 동안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와 취약분야에 관한 기획조사를 통해 탈루·은닉 세원 450건을 찾아 76억 4000만원을 추징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22개 법인과 비과세·감면 고유목적 미사용, 건설사 고액 토지거래, 신축 대형 건축물 취득가액 과소신고,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미신고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세목별로는 취득세 59억 1000만원, 지방소득세 6억 3000만원, 주

민세 4억 2000만원, 재산세 3억 5000만원, 지방교육세 등 기타 3억 3000만원을 각각 추징했다. 유형별로는 취득가액 과소신고 26억 1000만원, 산업단지, 물류단지, 창업 중소기업, 사회복지시설 등 감면 사후관리 46억 2000만원, 과점주주 4억 1000만원 등이다.

특히, 수도권 본점 법인의 전세권 설정 등기 자료를 통해 소규모 지점 입차 사업장을 찾아내 안분 미신고한 2014년, 201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1억 2600

만원을 추징했다.

시는 올해도 50억원을 추징하는 것을 목표로 자주재원 확충과 세무 탈루·은닉을 뿌리 뽑기 위해 강력한 세무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세무조사는 지역 내 입장을 두고 있는 법인을 대상으로 최근에 1억 원 이상의 부동산 취득하거나 1000만 원 이상의 지방세 감면, 50인 이상 종업원 고용 법인 중 22개 법인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신설법인과 과실 납세법인 등은 기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하고, 기업경영에 불편이 없도록 기업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등 기업친화형 세무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병욱 세정과장은 "정기조사 외 우수사례 벤치마킹, 빅데이터 활용, 비교세?감면 사후관리, 취약분야 등에 온 행정력을 집중해 자주재원 확충과 더불어 납세자 권익보호에도 적극 노력해 공평과세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적측량수수료 30% 한시적 감면”

당진시, 연말까지 농업인·국가유공자·장애인 대상

당진시가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지적측량수수료를 한시적으로 연말까지 30% 감면한다고 25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정부 보조사업으로 농가용 저온저장고와 곡물건조기 등 농업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농촌주택개량사업에 따라 실시하는 경계복원, 분할측량, 현황측량 등이 해당된다.

또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도 본인 소유의 토지 측량 시 국가유공자 확인서나 장애인증명서를 첨부해 신청하면 동일하게

3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감면과 별개로 시는 경제북일권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제 의뢰할 경우 경과기간에 따라 50%에서 최대 90%까지 감면해주는 제도도 시행 중에 있다.

당진시 관계자는 “이번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은 농업인과 국가유공자,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 지적측량 행정 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여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당진=최근수기자

평창 동계올림픽 “나라별 대표 맥주와 함께 즐겨요”

전 세계인들의 스포츠 대축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가 성큼 다가왔다.

이번 올림픽은 미국, 유럽, 아시아 등 90여 개국의 선수 6천 명이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돼 역대 최대 규모가 기대된다. 선수들은 피겨 스케이팅, 쇼트트랙 등 15개 종목에서 100여 개의 금메달을 놓고 경쟁을 벌인다.

다양한 종목만큼이나 나라별 맥주의 맛과 개성도 가지각색. 흥겨운 올림픽 축제 분위기를 돋울 참가국들의 대표 맥주를 살펴보자.

▲부드럽고 상쾌한 맛의 한국 대표 맥주, 카스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국 한국의 대표 맥주로 카스가 꼽힌다. 특유의 신선함과 청량감이 살아있는 카스는 1991년 첫 출시 이후 큰 사랑을 받으며 대한민국 대표 맥주 브랜드의 입지를 다져왔다.

부드러운 묵념김으로 다양한 안주와 함께 맥주를 즐기는 한국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게 개발해 가장 한국적인 맥주로 인기를 얻고 있다.

특히 카스는 제품 판매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회전율이 높아, 소비자들은 카스를 마시며 갖게 조한 맥주의 신선함을 느낄 수 있다.

▲벨기에 최고 필스너 맥주, 스텔라 아르투아
다양하고 특색 있는 맥주를 생산하는 벨기에에는 약 500여 개의 맥주 브랜드를 보유한 대표적인 맥주 생산국이다. 동계올림픽은 21번째로 출전하는 벨기에의 대표 맥주로는 프리미엄 맥주 스텔라 아르투아가 있다.

▲미국 최초의 라거 맥주, 버드와이저
미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맥주 버드와이저는 1876년 탄생한 미국 최초의 라거 맥주다. 미국은 동계올림픽 보유 메달 수 세계 2위로 스피드 스케이팅, 알파인 스키, 피겨 스케이팅 강국이다.

▲중국의 가장 깊은 전통 맥주, 칭다오
칭다오 맥주는 2022년 동계올림픽 개최국 중국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맥주 브랜드다. 중국 맥주를 대표하는 브랜드이자 중국에서 가장 팔리는 맥주로 국내에서도 많은 마니아층을 형성하고 있다.

독일이 칭다오 지역을 지배할 때 생산되기 시작해 맑고 깨끗한 천연광천수와 독일의 정통 기술이 어우러져 진하고 구수한 맛과 특유의 청량함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칭다오 지방에서는 매년 맥주 축제를 열고 있으며 해마다 50만 명의 인파가 몰린다.

▲깊고 진한 맛의 일본 프리미엄 맥주, 산토리 프리미엄 볼트
아시아 최초 동계올림픽 개최국인 일본은 산토리 프리미엄 볼트, 아사히, 기린 등의 대표 맥주를 보유하고 있다. 그중 산토리 프리미엄 볼트는 세계 희귀 품종인 다이아몬드 볼트를 사용해 일반 맥주와 달리 화려한 향과 깊고 진한 맛을 지니고 있다.

체코 사츠(Saaz) 지방의 아로마 홉을 사용해 아로마 홉 중에서도 고급 품종의 우아하고 섬세한 향을 더했다. 맥즙을 끓일 때 완전히 온도를 높여 총 두 번 끓이는 ‘더블 데코션’ 방식은 산토리만의 장인정신이 담긴 특별한 공정 과정을 거치는 점도 특징이다.

송병배기자

서산시 해양수산분야 77억 7900만원 투입

어업 경쟁력 강화, 기반시설 지원, 어업인 소득창출 사업에 앞장

서산시가 올해 어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살기 좋고 풍요로운 어촌 만들기为目标로 해양수산분야 총 54개 사업에 77억 7900만원을 투입한다.

시는 수산물 생산·가공·유통 및 관공산업과 6차산업화를 위해 19억 2500만원을 들여 다기능수산물센터, 가공설비, 주꾸미산란장 등을 조성하고 충남도 수산업경영인 개회를 지원한다.

수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수산물산지공시시설지원, 감태생산시설지원, 어촌계 진입장벽완화 시범사업 등에 11억 8100만원이 투입된다.

굴 친환경시설지원과 수산종묘방류 등 수산자원 보호·육성에 10억 6000만

원이, 양산포지구 연안정비, 소규모항보수, 복합다기능 부잔교 시설 등 어촌·어항 개발에 17억 2700만원이 지원된다.

해양환경 보전·개선을 위해 18억 8600만원을 들여 고파도 폐업전 생태복원,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 갯바위뉴시터 안전환경 구축 등을 추진한다.

도서지역 등 조건불리지역에 지원되는 수산직불금이 어가당 기존 55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되며, 어업경영 여건을 위해 어업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증여세, 취득세도 감면된다.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의 경우 올해부터 어업인후계자는 2억원, 전업경

영인은 2억 5000만원, 선도우수경영인은 3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내년도 국·도비 해양수산사업 지원희망자도 모집한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공고·고시를 참고하면 되며, 시청 해양수산과에서 방문 접수가 가능하다.

최평수 서산시 해양수산과장은 “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시설 지원과 어업인 소득창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며 “앞으로 어촌지역 특화 상품 개발과 새로운 소득원 창출을 통해 활기차고 살기 좋은 어촌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서산=김정형기자



온주복지관,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온주종합사회복지관(관장 채종병)은 지난 22일, 충청남도 육아종합지원센터(센터장 김미정)와 영유아 안전과 건강진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청양군 삼광벼 재배 농가 장려금 지급

청양군(군수 이석화)이 청양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삼광벼 계약재배 농가에 장려금을 지급한다.

이번 삼광벼 장려금 지원대상은 관내 농협DSC와 계약재배 체결한 농가로, 지원금액은 조곡 40kg포 당 4000원이며 계약 매입물량 중 1등급 이상 나온 물량에 대해 지원한다.

또한 올해부터는 공공비축 삼광벼 수매 농가에 대해서도 40kg포 당 2000원을 지원, 농가 소득보전을 해준다.

삼광벼 계약재배 및 장려금 신청은 오는 4월말까지 각 지역 농협본점 및 지점에 방문 신청하면 되고, 공공비축 수매농가는 9월 이후 공공비축 수매가 확정되면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삼광벼 재배관리상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계약재배 농가에 대한 장려금을 지원 생산비 보전과 삼광벼 재배 확대로 청양쌀 고급화 이미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양=정상범기자

고맛나루장터 설 명절 할인 이벤트

공주시, 최대 30%의 할인과 구매 금액별 최고 5만원의 쿠폰 지급

공주시(시장 오시덕)가 농·특산물 온라인 판매 쇼핑몰인 ‘고맛나루장터’를 통해 오는 2월 11일까지 ‘설 명절 할인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번 이벤트에는 공주에서 정성스럽게 재배한 농·특산물로 만든 기획선물세트 3종을 출시하고 업체별 할인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이벤트 상품은 모두 무료 배송된다.

기획선물세트로는 고맛나루 배(특상품 6.5kg), 고맛나루 혼합선물(배 특3, 사과 특3, 쌀쌀 800g 떡국떡 1kg, 밥 1kg), 알밤과 떡국떡 1kg, 간밤대 500g, 쌀떡국떡 1kg, 밤떡국떡 1kg으로 구성했으며, 업체별 할인 상품으로는 명절인기상

품인 밤, 밥 가공식품, 쌀, 과일, 반찬류 등 90여개로 최대 30%까지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한다.

특히, 이벤트 기간 동안 상품을 구입하는 회원 고객에게 구입금액에 따라 쿠폰을 지급하는 ‘통큰 이벤트’도 함께 진행 중에 있으며, 3만원이상 구입시 3천원, 5만원이상 구입시 5천원, 10만원이상 구입시 1만원, 20만원이상 구입시 3만원, 30만원이상 구입시 5만원의 고맛나루장터 디지털쿠폰을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맛나루장터에서는 구매 회원에게 결제금액의 3%를 고맛나루장터에서 다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도 상시적으로 적립해 주고 있어 이



용자들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공주=정상범기자



아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개소식 가져

충남 아산시는 시민에게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고용·복지 연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아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24일 공식 개소식을 갖고 본격 업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지난 12월 27일 온천동 시민문화복지센터 내 2층에 문을 연 아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각 기관별로 산재돼 있던 고용·복지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해 시민들이 한공간에서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으로 아산시는 작년 3월 고용노동부의 신설형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설치 공모를 통

해 최종 선정된 바 있다.

이날 개소식에는 복기왕 아산시장을 비롯해, 오복수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고광훈 천안지청장 등 관계자와 시민 80여명이 참석해 센터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복기왕 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아산 시민들은 이제 일자리와 복지, 서민금융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며 “그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산시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노력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왔던 것처럼 아산고용복지플러스센

터 역시 기존 센터를 뛰어넘는 양질의 서비스로 시민 여러분께 희망을 주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고용센터, 종합일자리지원센터, 여성세로일하기센터,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등 고용 관련 기관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복지지원팀, 서민금융을 지원할 미소금융재단 등 총 6개 기관 32명이 근무하며 청년·여성·중장년층 등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기타 문의사항은 아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041-570-5500 또는 570-5520)로 하면 된다.

아산=리량주기자

아산시 올해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

아산시는 농촌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2018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세부사업은 총 3개 분야 주택개량사업 100동, 빈집정비사업 100동,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 120동이다.

주택개량사업은 농촌지역의 농촌주민,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자가 연면적 150㎡이하의 규모로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하는 경우에 농협을 통해 고정금리 2.0% 또는 변동금리로 융자 해주는 사업으로 신축의 경우 최대 2억원 이내, 증축 및 리모델링의 경우 최대 1억원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대출상환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선택가능하며, 주거전용면적 100㎡이하로 건축할 경우 취득세 및 5년간 재산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촌빈집정비 사업은 농어촌 지역에서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농어촌 주택 또는 건축물이 대상

이며, 총 2억 원의 예산으로 각 동당 최대 200만원까지 빈집 철거 및 폐기물처리 비용을 지원한다. 이 중 슬레이트지붕은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과 연계해 처리가능하다.

슬레이트처리 지원 사업은 슬레이트 지붕 또는 벽체의 노후에 따른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가구당 336만원 한도 내에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용을 지원한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농촌주택개량, 농촌빈집정비사업,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을 희망하는 자는 1월 31일부터 2월 14일까지 사업대상 지역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김종호 건축과장은 “농촌주거환경개선을 통해 열악한 농촌 주거환경을 새롭게 탈바꿈시켜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도시의 농촌 유입을 활발히 해 농촌 지역 활성화에도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산=리량주기자



철도공단영덕역서 개최된 동해선 포항~영덕철도 개통식. 동해선 포항~영덕 철도 개통식에서 김영우 철도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왼쪽에서 여덟번째)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부여소방서, 은산면여성의용소방대장이·취임식



공주소방서, 대량 위험물저장시설 화재 대응 훈련



롯데백화점 대전점, 평창올림픽 계기 국가유공자 위문



서산소방서 한화건설 근로자 심폐소생술 교육



청양소방서, 강추위 이겨낸 열띤 훈련

탕정여성의용소방대, 마을담당제 활동

겨울철 화재예방 위해...마을의 전반적인 안전 확보



아산소방서(서장 이규선은)는 지난 23일, 겨울철 화재예방을 위한 의용소방대원 마을 담당제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아산=리량주기자

아파트 어린이놀이터 위생관리 강화 시급

<한국소비자원>조사결과... 일반세균 다량 검출, 위생상태 개선 필요

최근 놀이터 합성고무 바닥의 유해성과 환경오염 논란으로 인해 어린이들의 정서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모래 놀이터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모래는 관리되고 있지 않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이 수도권 30개 아파트 어린이놀이터 모래를 시험검사한 결과, 일부 놀이터에서 대장균이, 전체 놀이터에서 일반세균이 다량 검출돼 위생상태 개선이 필요

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모래의 경우 '환경보건법'에 따라 놀이터 신축·중축·수선 시에만 확인검사를 실시하고 있어 안전성 검증이 미흡한 실정이다.

제대로 하지 않으면, 개·고양이 배설물, 대장균 등에 모래가 오염돼 어린이 건강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반려동물 보호자의 위생관리 노력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선기자

보령시 대천5동, 주민 체감행정 '눈길'

보령시 대천5동(동장 최광희)의 지역주민을 찾아 행복지수를 높이는 주민 체감행정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대천5동에서는 겨울철 한파를 이겨내기 위해 경로당에서 웃음치료 강사를 초청, '어르신 웃음치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시 보건소와 협력해 어르신 백세 건강을 위한 '찾아가는 건강강좌 및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보령=김태선기자

대전효문화진흥원 '제1회 효문화포럼' 개최

대전효문화진흥원(원장 장시성)이 1월 26일(금) 오후 2시, 대전효문화진흥원 대강당에서 대한효종의 연합회 및 포럼회원, 일반인을 대상으로 2018년 제1회 '효문화포럼'을 개최한다.

장시의 특강과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형태 전 한남대 총장이 가장 윤리, 국가윤리, 사회윤리로서 인간살의 근간과 독립기념관이 총칭도에 세워진 이유, 인간으로서 보편적 윤리, 고조선부터 현대에 이르는 효·충·의의 변천에 대하여 폭넓은 강의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효문화진흥원 장시성 원장은 포럼을 앞두고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효문화진흥원 전문인 양성을 위해 효문화포럼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효 실천이 생활화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영호기자

Advertisement for a forum with contact information: (042)538-3030

태안해경, 불법영업 가두리 낚시터 무더기 적발



태안해양경찰서(서장 박형민)이 지자체와 합동단속을 통해 적발한 수용인원을 초과하거나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해상 낚시영업을 해온 일명 가두리 낚시터 9개소, 업주 9명을 낚시관리 및 육상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인원의 2~3배가 넘는 낚시객을 받는 방법으로 영업을 해왔다. 단속에서 적발된 A낚시터의 경우 최대 수용인원이 11명 인에도 30명의 낚시객을 수용하는 등 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된 상태로 영업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태안=김정환기자

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 보호위원연합회, 정기총회 개최

대전 솔로몬로파크...연합회 이사비롯 지역·직능별 회장 등 참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 보호위원연합회는 25일 오전 11시 대전 솔로몬로파크에서 연합회 이사를 비롯한 지역·직능별 회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연합회의 주요활동사항 보고와 세입·세출결산보고, 감사보고를 진행했으며, 201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했으며, 2018년도 법무보호복지사업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전문수련회(주)다우주택건설 대표이사(주) 1500만원, 김용관 부회장(주)상정종합건설의 주요활동사항 보고와 세입·세출결산보고, 감사보고를 진행했으며, 201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했으며, 2018년도 법무보호복지사업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전문수련회(주)다우주택건설 대표이사(주) 1500만원, 김용관 부회장(주)상정종합건설

송병배기자

화재취약지역 불법주·정차금지 홍보

당진소방서, 소방차 출동 막는 불법주·정차차량 강력 단속

당진소방서(서장 박천형)는 재난현장 출동 시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소방골든타인 확보를 위해 화재취약지역 불법주차 단속을 강화한다. 지난해 12월 21일 29명의 목숨을 빼앗아간 제천 복합건축물 화재 사례를 보면, 화재 당시 건물 주변의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화재 진화가 지연되었다.

당진시 우두동 영화상영관은 불법주차수십의 인원이 출입하는 대형화재취약대상으로 화재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 발생 우려대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상영관 주변 불법주·정차 상황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당진소방서에서는 지난 2월 영화상영관 주변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을 대대적으로 실시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 및 당진시와 협조해 불법주·정차단속을 강력하게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당진=최근수기자

예산소방서, 현장적응훈련 '구슬땀'

군내 가연성 외장재 사용 필로티 구조 복합건축물 훈련 전개



예산소방서(서장 권주태)는 이달 29일까지 화재발생 시 대형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가연성 외장재 사용 필로티 구조 복합건축물 화재에 대한 현장적응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지난 달 21일 충북 제천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하여 화재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한 훈련을 통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위

협성이 높은 건축물 관계자로 하여금 경각심을 주기 위해 마련됐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건물구조 및 소방시설, 출동로 등 사전숙지 ▲소방차량 출동중 불법주차 등 장애요인 확인 ▲소방차량 및 굴절사다리차 진입부서 위치선정 ▲소방활동 여건 및 위험요인 확인 ▲공기안전매트 전개 및 완강기 사용법 지도 등이다.

예산=양성범기자

청양소방서, 2018년 상반기 전보인사

청양경찰서는 지난 22일과 25일 철갑지구대장 겸감 김성수 등 33명에 대하여 인사발령을 실시하고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적재적소에 배치된 직원들은 화기에애한 분위기 속에서 각오를 발표하며 2018년 청양경찰서의 새로운 도약을 외쳤다. 고재권 경찰서장은 "주민이 진정 필요로 하는 치안 활동을 펼치

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인권 보호에 앞장 서 달라"고 당부했다. 인사는 내용은 22일자 경감급(▲철갑지구대장 김성수 ▲정산지구대장 신상현 ▲운곡파출소장 임항순), 25일자 경위 이하(▲생활안전계장 윤장훈 ▲여성청소년계장 소삼수 ▲생활안전계 이태희 등 27명)이다.

청양=성상범기자

서천경찰서, 응급후송으로 의식 없는 아이 구해

서천경찰서(서장 박정웅)는 서천경찰서 교통경찰관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거점 근무 중 호흡과 의식이 없는 아이 부모의 구호 요청에 긴급히 병원으로 응급후송하여 귀중한 생명을 구했다고 알려졌다. 지난 24일 오후 5시20분경 승용차량으로 서해안고속도로 군산에서 서천방향 상행선을 가고 있던 A양 부모는 5세인 A양이 갑자기 숨을 쉬지 못하고 입술이 파래지는 등 의식을 잃고 있어 급하게 동서천볼케이트를 빠져나와 112에 신고를 하며 가까운 군산종합병원을 향하고 있었다.

차량이 서천군 마서면 소재 하구언 오거리리를 지나갈 즈음, 마침 교차로에서 교통사고 예방 근무 중인 교통순찰차량을 발견하고 "딸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데 도와달라"며 A양 부모는 경찰관에게 구호를 요청했고, 서천경찰서 경비교통과 지관오 순경은 호흡이 없고 목이 축 늘어져 있는 아이의 상태에 응급상황임을 판단하여 부모와 A양을 순찰차량에 탑승시키고 동군산병원 응급실(약 6.6km)에 4분만에 도착, 신속하게 의사에게 인계하여 골든타임 내 5세 여아 생명을 구조하였다.

A양은 병원의 응급조치로 호흡·의식이 회복되어 건강하게 퇴원했다고 알려졌다.

서천=김태선기자

기업 32.5% '명절 전후 퇴사자, 평소보다 많아'

<커리어> '회사 인사이동 및 연봉협상 결과 참고하기 위해서' 가장 많아

인사담당자 10명 중 5명은 이직 시기를 명절 전후로 잡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연휴 전후라 후임자 채용이나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취업포털 커리어(대표 강석란)가 인사담당자 323명을 대상으로 '명절 이직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이직 시기를 명절 전후로 잡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66.6%가 '부정적이다'라고 답했고 이 중 45.8%가 '연휴 전후라 후임자 채용이나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뤄

지지 않는다'를 주된 이유로 꼽았다.

다른 의견으로는 '명절 상여금을 쟁겨 나가려는 것 같아서 안 좋게 보인다' 16.7%, '회사 입장을 고려하지 않아 알았다' 4%였다. 긍정적인 답변에는 '회사 방침이 불만족스럽다면 언제든지 나가는 것이 맞다(28.2%)', '인사이동 및 연봉협상 시기에 나가는 것이 차라리 낫다(3.7%)', '명절 전후로 나가는 것이 회사 입장에서도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다(1.2%)' 순이었다.

설문 참여 기업 가운데 32.5%는 '명절 전후로 이직 의사를 밝히는 직원 수가 평

소보다 많다'고 답했다.

인사담당자가 생각했을 때 직원들이 명절 전후로 이직하는 이유로는 '회사 인사이동 및 연봉협상 결과를 참고하기 위해서(58.1%)'가 가장 많았다. 이어 '명절 상여금까지 받고 나가려고(34.3%)', '명절 연휴동안 여유롭게 이직 준비를 하기 위해서(4.8%)', '명절 이후 상여받기 취업 시즌을 노리려고(1.9%)' 순이었다.

명절 전후 이직 의사가 실제 퇴사로 이어지는 확률은 어느 정도인가를 물었다. 응답자의 절반은 '대부분 퇴사한다

(47.4%)'라고 답했고 '절반 정도 퇴사한다(36.8%)', '퇴사 확률은 거의 없다(15.8%)' 순이었다.

그렇다면 퇴사 의사를 밝힌 직원에게 회사에서는 보통 어떻게 대처할까.

'불잡지 않는다'라는 의견이 55.1%로 가장 많았고 '뛰어난 업무 능력이나 회사 사정 등을 어렵게 설득한다' 37.5%, '연봉 인상이나 승진 등을 제안하며 붙잡는다' 6.8%였다. '퇴사 희망자에게 휴직 기간을 준다'고 답한 기업은 단 1곳에 불과했다.

이정복기자



홍성여고, 부산대와 '코딩-드론' 캠프

부산대학교 드론동아리 대학생 7명 초청

홍성여고(교장 유병대)가 부산대학교(총장 전호환) 드론동아리 대학생 7명을 초청하여 23일부터 28일까지 홍성여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코딩-드론' 캠프를 운영하고 있다.

홍성여고 학생들은 드론을 자유자재로 조정하는 방법과 코딩과 키트 조립과 엔트리교육을 희망하는 학생 14명에게 하루 10시간씩 지도한다.

홍성여고가 4차 산업혁명시대 도래에 따른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및 학생들의 진로 진학에 도움을 주고자 부산대학교에 대학생들의 방문 지도를 요청해 이루어 졌다. 홍성=김정환기자

충남도교육청, 우수 실천사례집 보급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의 일체화 실천사례 답안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의 일체화 교육과정의 재구성, 배움중심 수업의 전개, 수업 과정 중 실시하는 수행평가, 과정중심 수행평가를 통해 학생들의 성장발달을 점검하고 지원하는 내용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등, 일련의 교육활동이다.

충남은 그동안 교실 현장에서 학생중심의 학습활동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일체화 리플릿을 제작, 보급했으며, 일체화 지원단을 구축, 운영하고, 학습중심의 체험형 일체화 연수를 꾸준히 추진했다. 그리고 일체화 실천 사례 공모를 통해 30여명의 우수 실천교사를 선정하고, 이중 15명의 실천사례를 학교급별로 모아 사례집을 보급하게 됐다.



세종시교육청, 2018년 전문상담인력 연수

'상담 사례개념화 이론과 실제' 주제로 강의 진행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지난 17일과 25일 2일간 중충종합복지센터 내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세미나실에서 전문상담(교)사 50여 명을 대상으로 '2018년 전문상담인력 연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이명우 평택대학교 상담대학원장을 강사로 초빙하여 '상담 사례개념화 이론과 실제'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이명우 교수는 실제 상담 사례를 중심으로 '사례개념화'를 소개하고 이를 상담에 적용해보는 실질적인 기법에 대해 설명했으며, 전문상담(교)사들은 이를 통해 학생의 호소문제, 촉발 요인과 부적응적 패턴 등 상담학생의 심리를 다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었다. 세종시교육청은 관내 전문상담(교)사에게 체계적인 연수 기회를 제공하여 학생상담에 활용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학교 상담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특근 학생생활안전과장은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정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번 연수를 통해 전문상담(교)사가 다양한 유형의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상담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이정복기자



보령명천유, 신나고 즐거운 겨울썰매로 추억을 만들어요 명천유치원(원장 김혜정)은 23,4,5세 꼬미친들 116명과 함께 새해를 맞이하여 즐거운 추억을 만들기 위해 지난 24일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 있는 썰매장에 다녀왔다.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 교직원 및 학부모에게 안내

대전시교육청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 제작·안내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최근 졸업 및 입학 시점에 학부모가 꼭 알아야 할 선물을 하는 것에 대한 법적용 해석과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18. 1. 17. 시행) 내용 등을 포함한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를 제작, 대전 지역 교직원 및 학부모들에게 안내했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는 선물을 제

공할 수 있는 범위, 수수 금지 선물 처리 절차, 유치원과 각급 학교 교직원과 학부모가 궁금해 하는 사례에 대한 질의 & 응답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이번에 개정된 '청탁금지법 시행령'은 선물의 상한액을 5만원으로 유지하되 농수산물 선물에 한해 10만원까지 가능하며,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

만원으로 하향 조정, 선물 범위에서 상품권 등 유가증권 제외, 외부강의 사례금 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전교육청 류춘영 감사관은 "학부모와 교직원이 이번에 안내해 드리는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내용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세종시교육청, 복합커뮤니티센터 교육활동 참가 학생 모집

2월 1일부터 28일까지 체험중심의 다채로운 교육활동 운영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오는 2월 1일부터 28일까지 한달 동안 보람·아름·고운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체험중심의 다채로운 교육활동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세종시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월, 수, 목요일에 2시간씩 진행되며, 학년급을 고려하여 한 반에 10명 내외로 편성할 계획이

다.

교육활동 프로그램으로는 5명의 마을교사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다섯 가지 감각의 균형있는 발전을 꾀하는 오감만족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LED카드 만들기 ▲베트남 요리, 월남쌈 만들기 ▲향기테라피 ▲에코백 만들기 등 체험활동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아이들과 함께 수업에 몰입하는 3월'정책 추진으로 알찬

새학년 준비를 위해 1월 중 학사일정이 종료됨에 따라 학생들에게 지역사회 인프라를 활용한 다양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함께 포함되어 있다.

참가신청서는 세종시교육청 누리집(http://www.sjgo.kr/town) 마을교육공동체 공지사항에 탑재되어있으며 운영 계획서를 참고하여, 오는 1월 31일까지 세종시교육청 학교혁신과 담당자☎044-320-2028) 이메일(soop2017@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세종=이정복기자

공주교육지원청, 4차 산업혁명 교육을 선도한다

미래기술 교실수업 적용 선도교원 직무연수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은 25일부터 26일까지 공주대학교 한민교육문화원에서 초·중·고교 40명을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대비 미래기술 교실수업 적용 선도교원 직무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연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초·중·고교

교육과정에 적용됨에 따라 SW교육이 공교육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교원의 SW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수 내용은 충청남도교육청으로부터 특수분야 연수기관 지정을 받아, 미래기술로 각광받는 소프트웨어(코딩), 가상현실(VR), 드론, 로봇교육 등을 교실수업에

적용하도록 프로그램을 계획했다.

충남소프트웨어ICT교육연구회와 천안, 공주, 태안, 예산, 당진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교사를 전문 강사로 위촉하였으며, 교원의 수업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춰 교수학습 이론과 실습 위주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1일차 연수에 참여한 하성영 교사는 "SWMBL 기반 스마트 과학 수업 만들기, VR로 떠나는 아름다운 우리땅 복도, 엔트리를 활용한 자율주행 헬스케어 로봇 만들기, 4D 프레임용 활용한 메카트로닉스의 이해, 코딩으로 레이싱 패드론 제어하기, C언어 활용 로봇(헬스) 라인트레이서 만들기 강좌 등이 흥미로웠다"고 소감을 전했다.

유영덕 교육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끌 창의·융합형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수업혁신에 대한 전문적 역량 제고가 무엇보다 우선이며, 배움중심 수업으로 학생들의 컴퓨팅 사고력을 기르는데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주=정성범기자

새마을문고충청남도지부 2018년 정기총회 개최

25일 충청남도새마을회 회의실에서 15개 시군 대의원 참석



새마을문고충청남도지부는 25일 오전 11시 충청남도새마을회 회의실에서 2018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대통령기 38회 국민독서경진충청남도예선대회, 충남문고지도자교육, 우리는 문화가족 끝단을 올려라, 독서무학가행 등 책 읽는 즐거움, 나눔과 어울림, 행복한 문화공동체운동 실천 및 깨끗한 충남 만들기 등 2018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공동체·경제공동체·문화공동체·환경공동체·지구촌공동체 등 5대 중점과제를 실천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 행복한 충남"을 위한 새마을운동 추진에 앞장서기로 다짐했다.

송병배기자

충남도교육청, 4개 권역 나눠 보안담당자 교육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이 보안담당자들의 직무역량 강화에 나섰다.

25일부터 26일까지, 2월 1일부터 2일까지 4일간 충청남도교육연수원에서 4개 권역으로 나눠 도내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도서관, 각급학교 보안담당자 830여 명을 대상으로 보안담당자 실무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보안업무 실무편람을 교재로 ▲일반보안 ▲인원보안 ▲문서보안 ▲시설보안 ▲통신보안 등에 대해 실제 보안업무 수행 시 필요한 예시(안)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지난해 보안감사 결과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 운영 및 대외보안 재분류 등 보안 취약분야에 대한 주요 예제를 제시해 보안담당자들이 실습을 통해 단계 높은 보안업무능력을 구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보안사고 사전 예방 및 보안업무 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올해부터 신설 학교를 대상으로 보안업무 수행체계, 인원·문서·시설보안, 당직 및 비상대비 대책 관련 찾아가는 맞춤형 보안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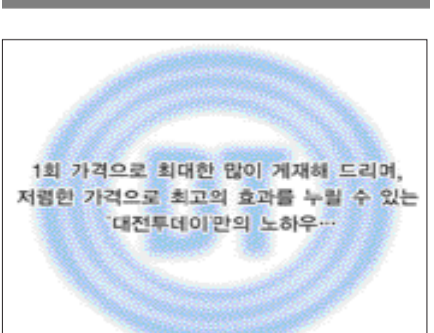
대전평생학습관, 한국 전통문화 체험교실 운영

대전평생학습관(관장 임태수)은 1월 26일 외국인 유학생 25여명의 한국 전통문화 체험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예절교실은 배재대학교 한국어 교육원과 연계해 우리 지역에서 공부하고 있는 외국인 학생들에게 한복 입는 법, 방석 바르게 앉는 방법, 절하는 법 등 한국 전통 예절을 교육할 계획이다. 또한, 우리 전통 민속놀이인 투호를 던져보며 자연스럽게 우리의 예를 체득하고, 다도 예절을 통해 손수차를 우리고 마시며 우리 차 문화를 이해하고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는 시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대전평생학습관 대전예절교육지원센터에는 한복 및 다구가 구비되어 있어 이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강좌 역시 무료로 운영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대전예절교육지원센터(042-220-0576)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정환기자



1회 가격으로 최대의 입이 게재해 드려,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전투데이만의 노하우...

동정

뉴딜사업 업무협약



북광왕 아산시장= 26일 오후 2시 서울정부청사(여성가족부)에서 열리는 여성친화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업무협약에 참석.

개소식



김홍장 당진시장= 26일 오전 10시 대호지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열리는 2018년 대호지면 연두순방에 참석, 오후 4시 30분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열리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

이·취임식



이종연 당진시의장= 26일 오후 6시 설악 웨딩타운에서 열리는 당진시장에인 후원회장이·취임식에 참석.

사랑장학회 이사회



한상기 태안군수= 26일 오전 11시 군청 사회회의실에서 열리는 제43차 태안군 사랑장학회 이사회에 참석.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이석화 청양군수= 26일 오전 10시 화성면사무소에서 열리는 화성면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에 참석.

탕정면 마을사례회의 열려

장애인가구 주거환경개선 방안 논의

이산시 탕정면 행복마을추진단(단장 송현순)은 23일 거동이 불편한 1급 장애인가구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을(village welfare) 사례회의를 개최했다. 노후된 농가주택으로 화장실과 목욕탕이 매우 협소하고 불편해 1급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어려운 주거환경에 처해 있는 류모 씨에게 도움을 주고자 열린 이번 회의는 IS동서 노동조합원들이 탕정면 행복마을추진단에 기탁해 주거환경개선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책방안 마련 등에 대해 논의했다. 'IS동서 노동조합원'들은 매년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 지원과 독거노인 물품지원, 연탄지원 등 다양하게 지역사회에 따뜻한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유중희 단장은 "복지허브화 정책이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마을 안에서 뿌리 내리기까지 선도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탕정면 행복마을추진단에 깊은 감사사를 드리며, 민·관이 함께하는 마을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총출동한 그물망 복지서비스를 수행하며 더욱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행정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마을(village welfare) 사례회의는 주민이 주관해 마을 안에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주민 스스로 찾는 마을복지 실현의 사례이기에 그 의미가 남달라며 주민 스스로 탄탄한 마을안전망을 구축하는 마을복지 허브화의 선도적인 사례를 탕정면이 만들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실질적인 보호·지원 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산=리량주기자

수요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실현 앞장

태안군 보건의료원, 올해 치매안심지원센터 설치 등 6대 사업 추진

지난 1996년 개원한 이래 국민 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앞장서 온 태안군 보건의료원이 올해 치매안심지원센터 설치 등 6대 사업을 추진, '행복한 국민' 시대에 앞장선다. 태안군은 25일 군청 브리핑실에서 보건의료원 정래브리핑을 갖고, 올해 치매안심지원센터 설치, ▲아르신건강센터 신축 ▲전립선암 및 백혈병 조기검진 및 치료 실시 ▲지역 응급의료기관 기능 보강 ▲우리마을 주치의제 내실 운영 ▲보건의료원 주차장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군은 최근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치매환자 증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 보건의료원 내 치매안심센터를 건립·운영한다. 총 2억 44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치매안심센터는 군 보건의료원 한방과 2층에 330㎡ 규모로 건립되며, 군은 사무실과 검진실, 상담실, 프로그램실, 가족카페, 컴퓨터 등을 설치해 치매환자 및 가족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보건의료원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건립되는 아르신건강센터의 경우 연면적 1,350㎡(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지난해 말 공사에 돌입, 오는 7월말 준공 목표로 현재 공사기간 중이다.

군은 아르신건강센터 준공 후 간호사와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5명의 전문인력을 채용해 원스톱 건강클리닉을 운영하고 재활치료와 물리치료, 기공치료 등 각종 재활프로그램 등을 마련해 군민들의 행복한 노후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군은 타 지역 대비 발병률이 높은 전립선암(남성)과 백혈병(여성)의 예방을 위해 올해 보건 전문인력이 직접 마을을 찾아 조기검진을 실시하는 한편, 태안군 유일 응급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오는 4월까지 응급실 리모델링을 실시하고 응급의학과 전문의 채용에 나설 계획이며, 의료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마을을 찾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마을 주치의제'의 내실 있는 추진에 나서고, 보건의료원 주변 5,600㎡ 토지를 매입해 총 17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추가 조성키로 하는 등 보건의료원을 이용하는 군민들의 불편 해소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다. 이상 6대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되면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가 대폭 확대돼 '건강한 태안' 건설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군은 보건의료원이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태안=김정환기자

우리/동/네

계림공원 개발사업 추진 탄력

당진시 우선협상자 사업제안수용 결정

당진지역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계림공원(당진시 수청동 산 149번지 일원, 28만 5,796㎡)을 개발하는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당진시가 25일 민간 조성 특례사업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서해 종합건설의 사업 제안을 수용키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간 조성 특례제도란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도시공원을 민간이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개발면적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보존하고 30% 미만의 면적을 주거 또는 상업시설 같은 비공원시설로 조성할 수 있다. 당진시는 민간공원 조성 특례제도를 활용해 계림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2월 사업 공모 절차에 돌입해 지난해 9월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우선 협상자로 ㈜서해 종합건설을 선정한다. 이후 시는 우선협상자의 사업계획(공원 조성계획)에 대한 협상을 진행해 왔으며, 이달 19일에는 우선협상자의 계림공원 민간 조성 특례사업 제안에 대해 당진시 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자문을 받아 수용키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시는 우선협상자의 계림공원 조성계획을 입안하기 위해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밟은 뒤 최종 사업시행자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당진시 관계자는 "인허가 등의 행정절차를 마치고 이르면 2019년 하반기에 계림공원 민간공원 조성 사업이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당진=최근수기자

이석화 청양군수 공감과 소통의 연두순방 마무리

군민과의 대화를 통해 소통강화·군정에 적극 반영



이석화 청양군수가 25일 운곡면을 끝으로 군민과의 대화를 통한 공감과 소통의 읍·면 연두순방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 군수는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이번 순방에서 지난해 주요 성과와 앞으로의 군정 비전을 직접 설명해 큰 호응을 얻었으며, 가깝없는 대화를 통해 군민들의 어려운 곳을 해결해주는 데 주력했다. 특히 10일간의 순방기간 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200여건의 건의사항이 접수돼 군민들의 군정에 대한 높은 관심이 나타났다. 취약지역 CCTV 설치나 도로 및

시설 개선 사업 등 민생과 관련된 건의사항이 주를 이룬 가운데 ▲정산중학교 부지 문화체육기초시설 활용 ▲원양공원 주차장 설치 등 지역현안에 대한 건의도 관심을 끌었다. 청양군은 이에 대해 현지출장, 대안제시, 제도개선 건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군정에 적극 반영 주민불편을 해소해 준다라는 방침이다. 이석화 군수는 "군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청양군이 다양한 분야에서 큰 성과를 내고 있다"며 "순방을 통해 전해진 군민의 소중한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군정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청양=정성범기자

태안군 CCTV 통합관제센터 안전 지킴이 역할 '톡톡'

박경순 관제요원치매노인 발견 후신고해 태안경찰서 감사장받아



군에 따르면, CCTV 관제센터 소속 박경순(51) 관제요원은 지난 20일 23시경 군 문화예술센터 버스정류장 부근 CCTV를 통해 실종신고가 접수된 치매노인 의심자를 발견하고 태안경찰서에 신고, 군민안전을 지켜낸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4일 관제센터에서 태안경찰서 감사장 수여식을 가졌다. 박경순 관제요원은 "CCTV 통합관제센터 소속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한다"며 "감사장을 받아 영광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맡은 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태안군 CCTV 관제센터는 24명의 관제 요원과 경찰, 행정 공무원이 24시간 근무체제를 가동하

고 있으며, 순찰 중인 경찰관 등과도 긴밀한 연락체제를 갖추고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며 군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방범·어린이·재난·학교 등 분야별 총 976대의 고화질 CCTV를 구축, 태안 전역의 우범지역을 철저히 모니터링하며 '군민 모두가 안전한' 태안 구축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CCTV 관제센터는 지난 2013년 1월 운영을 시작한 이래 군민 안전을 위한 관제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 방범 취약지역에 대한 CCTV를 확충하고 경찰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 군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태안=김정환기자

둔포면 새마을협의회 연시총회

이산시 둔포면 새마을협의회(회장 김광국, 부회장 유영숙)는 지난 23일, 남·녀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연시총회를 개최했다. 연시총회는 새마을 회원 6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의 활동을 결산하며 왕성히 활동해준 지도자 4명에게 포상을 수여하는 한편 무술년 새해맞이 각오를 다졌다. 또한, 2018년 임기 만료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임원은 지도자들의 합의로 현 회장, 부회장이 연임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김광국 회장은 "2017년 한 해 지도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새마을지도자회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며, "지도자분들께서 보내주시는 신뢰에 보답하고, 무술년 새해에도 더욱 단합된 모습으로 둔포면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문영 둔포면장은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둔포면에 꽃길 조성, 대청소 등 살기 좋은 둔포만들기에 앞장서주셔서 감사드리며, 새로 연임된 김광국 새마을협의회회장을 중심으로 올해에도 변함없는 봉사를 부탁드린다"며 격려했다. 이산=리량주기자

온양3동-88자율방범대 함께 제설작업에 구슬땀



이산시 온양3동(동장 김형관)과 88자율방범대(대장 장성준)는 지난 23일, 저녁부터 내린 눈으로 인한 이면도로 노면의 결빙을 예방하고자 24일 새벽 제설작업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날 제설작업에는 1톤 제설기 1대를 이용해 온양3동 관내 이면도로와 상습결빙지역에 아침 출근시간 전까지 지속적으로 염화칼슘 살

포를 실시했다. 온양3동과 88자율방범대는 그동안 함께 제설작업을 실시하면서 주민불편의 최소화 및 원활한 차량소통을 위해 발 빠르게 대응해 왔다. 김형관 온양3동장은 "항상 제설작업에 협력해 주신 88자율방범대에 감사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겨울철 대설특보에 대비하여 제설작업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이산=리량주기자

청양군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 운영

청양군(군수 이석화)은 25일 자치법규 품질 향상과 지자체 입법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를 운영했다.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는 충청남도에서 기초자치단체를 직

접 방문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입안·해석·정비 등에 대한 종합 상담 및 교육을 지원한다. 이날 협업센터는 충청남도 인승철 법제협력관의 사례연수 등을 중심으로 한 교육 후, 사전에 지문 요

움을 받았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협업센터 운영을 통해 자치법규 실무담당자들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주민에게 불행·부담이 되는 규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조례 속 숨은 규제를 개선·정비해 나가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양=정성범기자

당진시 농업인 안전 농작업 지원

농업기술센터, 농가맞춤 전기용접기술 교육 실시

당진시 농업기술센터는 25일 농기계교육관에서 지역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전기용접기술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전기용접기술 교육을 통해 농기계의 수명을 연장하고 농가의 작업능률 향상과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교육에서는 전기용접의 기본 기술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전기용접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현장 중심의 교육이 이뤄져 농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교육에 참석한 한 농업인은 "농기계를 직접 수리하고 시설물을 관리하는데 매우 유익한 교육이었다"며 "처음에는 용접하는 것이 어렵게 보였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했다. 센터 관계자는 "전기용접기술을 어렵고 위험하게만 생각할 수 있지만 교육과정대로 안전하게 사용하면 농작업 능률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농작업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당진=최근수기자

통정

시민과의 대화



오시덕 공주시장은 26일 오전 10시 반 포면, 오후 2시 웅진동에서 열리는 2018년 읍면동 방문 및 시민과의 대화에 참석.

농업인 실용교육



김동일 보령시장은 26일 오전 10시 대전5동주민센터에서 열리는 농업인 실용교육, 오전 10시 50분 대전2동주민센터에서 열리는 민생현장 방문, 오후 3시 30분 시청 상황실에서 열리는 민선6기 시장 공약사항 이행 평가단 회의, 오후 6시 머드린호텔에서 열리는 제1회 충청남도 근해안강망 어업인 한마음 대잔치, 오후 6시 30분 노블리안웨딩홀에서 열리는 대전충청총동맹회 정기총회 및 신년교례회 참석.

간부회의 주제



이완섭 서산시장은 26일 오전 8시 40분 시장실에서 열리는 간부회의를 주제.

2018년 적십자회 총회



유영덕 공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은 26일 오후 2시 30분 공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2018년 적십자회 총회에 참석하고, 오후 6시 리버스컨벤션에서 열리는 공주소방서 여성용소방대장이 취임식에 참석.

Advertisement for Daejeon Today (대전투데이) with contact information (042)538-3030 and website www.daejeontoday.com.

보령시, 가뭄피해 최소화 위한 가뭄대책 추진

농업용수 공급 · 영농편의 제공

보령시는 지난 2015년 이후 유례없이 지속되는 가뭄으로 매년 영농기 가뭄피해가 심각함에 따라 올해도 가뭄피해 최소화를 통한 농업용수 공급 및 영농편의 제공을 위해 근본적인 가뭄대책을 추진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저수지 누수 보수보강 및 준설, 농업용수 퇴수재활용 간이양수장 설치, 농업용 관정 개발 및 사후관리, 용수관로 및 양수장비 구입, 하상굴착 및 토제보 설치, 기타 한해대책 사업이다. 시는 먼저 농촌용수가 부족한 지역의 수원공 시설을 보강해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 및 영농 생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9억1900만 원을 투입, 지표수 보강(저수지)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보강 대상은 지난해 국가안전대진단 및 분기별 농업용 저수지 안전점검 결과에 의한 노후 시설물 한해도 가뭄피해 최소화를 통한 농업용수 공급 및 영농편의 제공을 위해 근본적인 가뭄대책을 추진한다.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저수지 누수량 저감이 필요한 시설 ▲수해구역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공급시설 정비에 필요한 시설이며, 주포면 연지리, 주교면 송학리, 오천면 교성리 등 13개 지역이다. 또 국비 3억2400만 원, 특별교부세 12억 원 등 26억4000만 원을 투입해 올해 5월까지 대전·진주·죽림·양향·신흥·옥계지구 등 13개소에 대한 간이양수장 설치를 추진한다. 아울러 농업용 관정 개발 및 사후관리로 4억7000만 원을 투입해 57개소에 대한 시설을 보완하고, 용수관로 및 양수장비 구입, 하상굴

착 및 토제보 설치에 1억5000만 원, 저수지 준설 등 한해대책사업으로 7억1500만 원을 각각 투입한다. 이밖에도 11개 산업단지의 113개 업체의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관정 개발 및 보강을 실시하고, 농업용수 절감을 위해서도 임직원들의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각 읍면동을 통해 이장회의, 기관단체장 회의를 비롯한 각종 회의시 논물 가두기를 동참해 줄 것을 권장하고, 취약농경지 대상 물 절약 캠페인을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앞으로는 충청남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11억 원을 지원 받아 영농기 이전인 3월 이전까지 퇴수재활용 간이양수장 5개소를 설치하고, 저수량 확보를 위한 저수지

준설 등 한해대책 사업 특별교부세도 건의할 계획이다. 김동일 시장은 "지난해 42년 만의 극심한 가뭄을 극복하기 위해 생활·농업·공업 용수 분야에 167억 원을 투입, 노후 수도관 교체, 관정개발, 저수지 준설을 했고, 올해는 지난해 특히 피해를 많이 입은 부사호의 영농 피해 저감을 위한 방조제 단면 확대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가뭄해갈을 위한 항구적인 대책 마련으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령=김태성기자

공주시 동절기 경로당 급식 전담도우미 운영

어르신위한 건강한식단제공 · 식사문제 해결에 앞장

공주시(시장 오시덕)가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한 식단제공 및 식사문제 해결을 위해 동절기 경로당 어르신들의 급식을 전담할 도우미 제도를 운영에 들어간다. 시에 따르면, 농촌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은 평균 75세를 넘는 고령이어서 식사 준비와 설거지 주변청소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1억 1천만원의 예산을 투입, 어르신들에게 건강한 식

단제공 및 어르신들의 식사문제를 해결하고 농한기를 이용한 일자리 제공 기회도 마련 할 수 있는 일거양득(一舉兩得)의 전담도우미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급식 도우미는 위탁기관인 대한노인회공주시지회에서 급식운동을 하는 경로당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관내 경로당 147개소에 169명을 배치해 어르신들의 급식과 배식을 도와주고 있다. 도우미는 노인들이 경로당을 연

중 가장 많이 이용하는 1월과 2월 및 12월 동절기 3개월간 과연패 주 3회, 하루 3시간, 월 30시간을 근무하게 되며 월 27만원의 활동비를 받게 된다. 공주시 복지지원과 노인복지팀 손애경 팀장은 "공주시 노인인구가 2017년 12월 기준 2만 4948명으로 인구대비 22.9%로 다른 도시보다 빠르게 초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만큼 앞으로도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복지서비스사업에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주=정성범기자

서산시 보건소 감염병 예방 · 식품안전 '온힘'

보균검사 · 유행예측조사 등 통해 감염병 조기 발견

서산시 보건소가 감염병과 유해식품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시 보건소에서는 민간의료기관과 함께 감염병 종합방역 체계를 구축하고 감염병 사전발생 차단에 집중한다. 신종·재출현·해외유입 감염병의 예찰을 강화하는 한편, 보균검사, 유행예측조사 등을 통해 감염병을 조기 발견하고 확산을 막는다. 지난해 6월 구축된 방역지리정보 시스템을 통해 방역이 필요한 지역을 실시간 파악하고, 방역약품의 사용량과 재고량 등의 관리에도

노력한다. 연막소독, 잔류소독 등 체계적인 방역소독과 예방접종 및 전문적인 만성 감염병 관리를 통해 시민 건강을 보호할 계획이다. 특히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높은 관심에 발맞춰 식품안전관리와 위생업소 수준향상과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에도 힘을 쏟는다. 명절·김장철 등 특정 시기에 소비가 늘어나는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소에 대한 위생 점검을 강화하고, 행락철이나 하절기에는 식중독 예방 점검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서산=김정희기자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수준을 평가해 등급을 지정하는 위생등급제를 실시하고 지정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서산시는 이달 초 이뤄진 조직개편에서 ▲감염병관리팀 ▲위생관리팀 ▲위생허가팀으로 구성된 보건위생과를 신설했다. 김지희 서산시 보건위생과장은 "시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신속한 감염병 예방과 적극적인 식품 안전관리를 펼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서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산=김정희기자

우리/동네

공공부문 350여명 일자리 창출

금산군, 8억6400만원 투입 3개 사업 추진



금산군은 올해에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 사회적기업·마을기업 지원 등 3개 사업에 8억6400만 원을 투입, 350명 이상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창출키로 했다. 공공근로사업의 경우 매분기마다 사업을 신청 받아 DB구축사업, 서비스지원사업, 환경정화사업, 안전관리 및 기타사업 등 4개 분야의 일자리를 만들게 된다. 여기에는 5억22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1단계 사업은 1월부터 3월까지며 동절기인 점을 감안해 실내 사업장 위주로 진행하고, 2단계 사업부터는 10개 읍면 국토공원화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군민들의 실업구제를 돕는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2월과 5월에 신청자를 받아 상하반기 각 4개월로 진행되며, 지역자원 활용형, 서민생활 지원형, 지역생활공간 개선형 등 3개 분야 7개 사업으로 이뤄진다. 올해는 지역청년허브, 유실수 및 전통기술 마을발전사업, 유채꽃 테마공원 조성 사업이 신규로 보강됐다.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지원사업은 지역사회공헌과 일자리 창출, 마을공동 수의장촌의 기업을 육성하는 것으로 올해에는 총 2억5200만원이 투입된다. 일자리창출 인건비 지원, 사업개발비 지원 등을 통해 관내기업체,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의 신규참여를 유도, 취약계층 및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게 된다. 금산=주연기기자

한국쌀전업농 서산시연합회, 사랑의 쌀 전달

한국쌀전업농 서산시연합회(회장 지용길)이 24일 서산시를 방문하고 회원들이 정성들여 농사지는 600만원 상당의 300포 쌀을 전달하며 따뜻한 이웃사랑의 마음을 전했다. 이완섭 시장은 "이번에 한국쌀전업농 서산시연합회에서 기탁한 쌀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소중히 쓰일 것"이라며 "이번 쌀 기탁을 계기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가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에 기탁된 쌀을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서산=김정희기자

지역 어려운 이웃 전달 예정



한국쌀전업농 서산시연합회(회장 지용길)이 24일 서산시를 방문하고 회원들이 정성들여 농사지는 600만원 상당의 300포 쌀을 전달하며 따뜻한 이웃사랑의 마음을 전했다. 이완섭 시장은 "이번에 한국쌀전업농 서산시연합회에서 기탁한 쌀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소중히 쓰일 것"이라며 "이번 쌀 기탁을 계기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가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에 기탁된 쌀을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서산=김정희기자

Large advertisement for 'MODERN TRADITIONAL HOUSES' featuring images of traditional Korean architecture and text describing the 'BEST PLAN' and 'Modern Traditional Houses'.

*문의 ▶ KBS 470-7320 ▶ MBC 220-2348-9 ▶ TJB 281-1101 ▶ SBS (02)369-1090
*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Table with 7 columns: Channel (KBS1, KBS2, MBC, TJB/SBS, CMB, EBS), Time, Program Name. Lists various news, entertainment, and sports programs.

*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Table with 7 columns: Channel (KBS1, KBS2, MBC, TJB/SBS, CMB, EBS), Time, Program Name. Lists various news, entertainment, and sports programs.

*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Table with 7 columns: Channel (KBS1, KBS2, MBC, TJB/SBS, CMB, EBS), Time, Program Name. Lists various news, entertainment, and sports programs.

TV 하이라이트

▲ 해피시스터즈 (SBS 오전 8시20분)



계단에서 구른 화염은 급히 병원으로 옮겨지고, 가족들은 유산이 되지 않기만을 바라며 극도로 불안해 한다. 한편 역자는 예은의 계속되는 마음고생이 안쓰러워 이훈을 권하고, 예은은 마지막 결정을 고민하게 되는데...



▲ 돈꽃 (27일 MBC 오후 8시45분)

국환(이순재)에게 전장을 선포한 필주(장혁)! 양보관(권혁)으로부터 아버지 기쁨(박지일) 자신의 결혼을 조작했다는 사실을 듣게 된 모현(박세영)! 한편, 위기감을 느낀 부친(장승조)은 필주(장혁)를 뉴욕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케이블 영화

▲ 퍼시픽 림 (27일 OCN 오후 3시50분)

2025년, 일본 태평양 연안의 심해에 커다란 균열이 일어난다. 정체를 알 수 없었던 이 곳은 지구와 우주를 연결하는 포탈이었고 여기서 엄청난 크기의 외계괴물 '카이주(Kaiju)'가 나타난다.

일본 전역을 시작으로 미국, 중국, 러시아, 호주 등 지구 곳곳을 파괴하며 초토화시키는 카이주의 공격에 전 세계가 혼돈에 빠진다. 전 지구적인 비상 사태 돌입에 세계 각국의 정상들은 인류 최대의 위기에 맞서기 위한 지구연합군인 '발태평양연합방어군'을 결성, 각국을 대표하는 메가톤급 초대형 로봇 '예거(Jaeger)'를 창조한다. 상상을 초월하는 수퍼 파워, 뇌파를 통해 파악된 동작을 인식하는 신개념 조종시스템을 장착한 예거 로봇과 이를 조종하는 최정예 파일럿들이 괴물들에게 반격을 시작하면서 사상 초유의 대결이 펼쳐진다. 상상의 끝은 없다! 열마든지 기대하라!

▲ 가려진 시간 (28일 채널CGV 오후 7시20분)

"이 얘기를... 네가 믿어줄까?" 엄마를 잃은 후 새 아빠와 함께 화노도 로이사는 '수란'.

자신만의 공상에 빠져 홀로 지내는 수란에게 '침민'이 먼저 다가온다.

돌만의 암호로, 돌만의 공간에서, 돌만이는 추억을 쌓아가는 그들. 어느 날, 공사장 발파 현장을 구경하기 위해 친구들과 산으로 가고 그곳에서 모두가 실종된 채, 유일하게 수란만 돌아온다.

그리고 며칠 뒤, 자신이 성민이라는 남자가 수란 앞에 나타난다.

멈춰진 시간'에 갇혀 어른이 되었다는 성민. 수란만이 성민을 믿어주는 가운데 경찰과 마을 사람들은 의심을 거두지 못하고 성민은 쫓기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데...

"너만, 나를 믿어주면 돼" 세상은 돌랐던 특별한 이야기

대전광역시 서구야구협회 2018년 협회장기 리그 모집. 모집기간 11월 17~선착순. 모집팀 토요일 3부·4부 각 15팀, 일요일 3부·4부 각 15팀. 대외방식 14경기 - 2심제 / 1기록. 리그개막 토요일 2월 10일, 일요일 2월 11일. 문의 리그 사무국장 김태선 010-4442-7752, 리그 심판장 김형태 010-2220-9968.



건강대, 3D프린팅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건강대학교(총장 정연주)링크플러스 사업단은 이달 중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회 창의메이커스필드 3D프린팅 활용경진대회에서 건강대 의료소재학과 학생들이 우수상 2개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냈다고 25일 밝혔다.



당진 석문농협, 어려운 이웃 돕기 동참 당진 석문농협(조합장 최대성)은 지난 24일 석문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석문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 달라며 125만원 상당의 쌀 10kg 50포를 기탁했다.



천안시 풍세면 "학계정미소", 사랑의 쌀 나눔 천안시 풍세면 행복마을지원단(단장 김승희)에 연이은 나눔이 이어지며 추운 겨울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가 확산되고 있다. 천안시 풍세면삼태리에 위치한 '학계정미소'는 25일 지역 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달라며 사랑의 쌀 10kg 50개를 풍세면 행복마을지원단에 전달했다.



와이엠씨(주) 이윤용 대표, 공주대에 발전기금 1,000만원 기탁 와이엠씨(주)이윤용 대표는 지난 24일 공주대에 대학발전과 지역인재 양성에 써 달라며 대학발전기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



현대다이모스, 행복한 보금자리 사업비 1억 전달 서산시 지역면에 위치한 현대다이모스(대표 조원정)가 지난 24일 행복한 보금자리 사업비로 1억원을 서산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전달했다고 밝혔다.



안전보건공단대전본부, 엘지화학 대산공장 협력업체 KOSHA 18001 인증 안전보건공단대전지역본부는 25일 (주)엘지화학 대산공장 협력업체인 (주)유엔미시스템, (주)대도건설, 퍼시픽기계기술에 KOSHA 18001 인증서와 인증패를 전달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한밭대 기능성화학소재 해외 투자자 초청 상담회 글로벌 마케팅과 투자유치 위한 컨퍼런스

한밭대학교(총장 송하영)는 24일 대전 ICC호텔에서 충청지역 기능성화학소재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과 투자유치를 지원하는 해외 투자자 초청 '글로벌 마케팅과 투자유치'를 위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 컨퍼런스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하는 '경제협력권산업 육성사업'인 '기능성 화학소재 산업 고도화를 위한 사업화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한밭대 기능성화학소재기업지원사업단장 이봉호 교수, 이하 '기능성화학소재사업단'이 주관하고 (재)대전테크노파크, 글로벌 투자유치회사 (주)화동인터내셔널이 참여하며, 26일(금)까지 이어진다.

컨퍼런스는 대전·충남의 기능성화학소재 기업 중 시장 확대나 해외 투자유치를 원하는 기업



이 국내·외 마케팅 및 투자유치 심사관을 대상으로 보유기술에 대해 프리젠테이션을 실시하고 평가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총 6개 기업이 투자심사를 신청했다.

해외 투자유치 심사관으로는 중국 투자사인 ARK컨설팅그룹 레오 대표 (Mr. LEO, ARK Consulting Group CEO), 유럽과 베트남의 투자그룹 운영자 디프호 박사(Dr. Diep Ho, Zomia Group CEO), 싱가포르와 스리랑카의 EX그룹의 투안 수석 부사장(Mr. Tuan, EXX Global Group of Companies) 등이 참여한다.

또한 이 컨퍼런스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기업들을 중심으로 오

는 3월 중국 북경 중관촌에서 중국 투자회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2차 투자 유치대회가 있을 예정이다.

이봉호 단장은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글로벌 마케팅이 활발하게 이뤄져 대전·충남지역 기능성화학소재 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과 매출성장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사업화지원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참여기업들과 협력하면서 성과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밭대 기능성화학소재 사업단은 사업화지원 사업을 통해 대전·충남 지역의 중소·중견기업의 매출·수출 증진을 위한 전시회 지원, 바이어 초청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가치창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정복기자

태안 MG새마을금고, 장학금 기탁



태안 MG새마을금고(이사장 이일형)가 지난 24일 군청 군수실에서 장학금 기탁식을 갖고, 지역 학생들을 위해 500만원 상당의 장학금 500만원(재)태안군사랑장학회에 기탁했다.

이일형 이사장은 "태안군의 발전과 지역 미래 역군들의 성장에 도움이 되고 싶어 직원들과 힘을 모아 장학금을 기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을 위해 좋은 일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태안 MG새마을금고는 지난 2016년에도 태안군에 장학금 500만 원과 성금 500만 원을 각각 기탁하고 지난해 1월에도 이웃돕기 성금 500만 원을 기탁했으며, 평소 쌀 모으기 행사와 직원 자원봉사 등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 지역사회에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태안=김정환기자



청양 마늘연구회 연시총회 개최

청양군 마늘연구회(회장 이찬영)가 지난 24일 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연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시총회에서는 2017년도 사업결산 및 2018년도 활동계획, 임원개선 등에 대해 협의했다.

특히 청양마늘 생산 확대를 위한 기계화, 품질향상을 위한 건조기 사업 추진 등을 협의했으며 원예조합 수매 관련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이번에 취임한 이주전 신임회장은 "연구회원과 재배면적이 증가된 만큼 앞으로 품질관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유량 시비, 건조기 설치 등 지속적인 품질향상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청양=정성범기자

● 동정 ● 정기총회



유재문 새마을지도자총연합회 회장 =
 26일 오전 11시 새마을운동당신시지회 회의실에서 새마을지도자총연합회 정기총회를 주관.

계룡건설, 희망나눔 캠페인 참여... 지속적인 기부활동



계룡건설이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한 희망나눔 캠페인에 참여해 지속적인 기부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승찬 사장은 1월 25일 오전 10시 세종특별자치시청과 홍영섭 세종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이 참석한 '희망 2018 나눔캠페인' 성금전달식에서 성금 2,000만원을 기탁했다.

또한, 작년 11월 23일 대전시청 남문광장에서 열린 '희망 2018 나눔캠페인' 출범식 및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에서도 성금 1억 원을 기탁한바 있으며, 2월 2일에는 충청남도에도 '희망 2018 나눔캠페인' 성금 3,000만 원을 전달할 예정이다.

박봉관기자

대전둔산우체국 봉사모임 '사랑의전령사' 성금 기탁



대전둔산우체국 집배원 봉사모임 사랑의전령사 회원들이 25일 십시일반 모은 성금 100만원을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사랑의 전령사 송광섭 회장이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국에서 박희희 사무처장(우측)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사

■ 세종시교육청
 < 장학관(교육연구관)임용 >
 ▲학교혁신과 학교혁신담당 임전수 ▲교육과정과 유아교육담당 박수미 ▲교육과정과 초등교육담당 이강 ▲교육과정과 중등교육담당 권용병 ▲교원인사과 교원역량강화담당 신경숙 ▲장의인재교육과 융합교육담당 강해정 ▲학생생활인재과 체육예술담당 임미경 ▲세종교육연구원 연구원수센터장 안희숙

※ 세종시교육청 인사 본보 홈페이지 참조.

아산시, 2018 농업인 실용기술교육 성료



아산시는 지난 9일부터 시작한 2018년 농업인 실용교육이 농업인들의 큰 호응 속에 지난 24일, 농기계안전교육을 끝으로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벼, 배, 사과, 오이 등 품목별 전문교육과 6차 산업을 주제로 한 강의와 올해 새로 시작한 농기계안전교육 등 농업인들이 꼭 필요한 교육으로 꾸며졌다. 아산=리량주기자

신기산업(주),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대전지역 범농협 계열사 대표 대상... 농가소득 증대 방안 마련

농협중앙회 대전지역 본부는 25일 지역본부 회의실에서 현재 농협의 최대 당면현안인 농가소득 증대와 시너지사업 활성화를 위해 대전지역 범농협 계열사 대표를 대상으로 시너지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는 대전지역 범농협 계열사 대표 15명(농협중앙회 대전지역본부장, 신현우 조합감사 위원회사무처 대전검사국장, 김선숙 농림수산사업자지원센터장, 대전지역농협센터장, 송필용 농협대전공관장, 국병근 농협대전유통대표이사, 김보석 남해화학 대전충남지사장, 임원혁 농협기계갈대전충남지사장, 전주호 농협목우촌대전지사장, 신인식 농협은행대전충남본부장, 김기봉 농협생명대전충남지사장, 강명환 농협순혜대전충남지사장, 장훈 농협캐피탈대전

오토금융지점장, 나기호 농협자산관리 대전충남지사장, 김봉찬 농협네트워크 대전충남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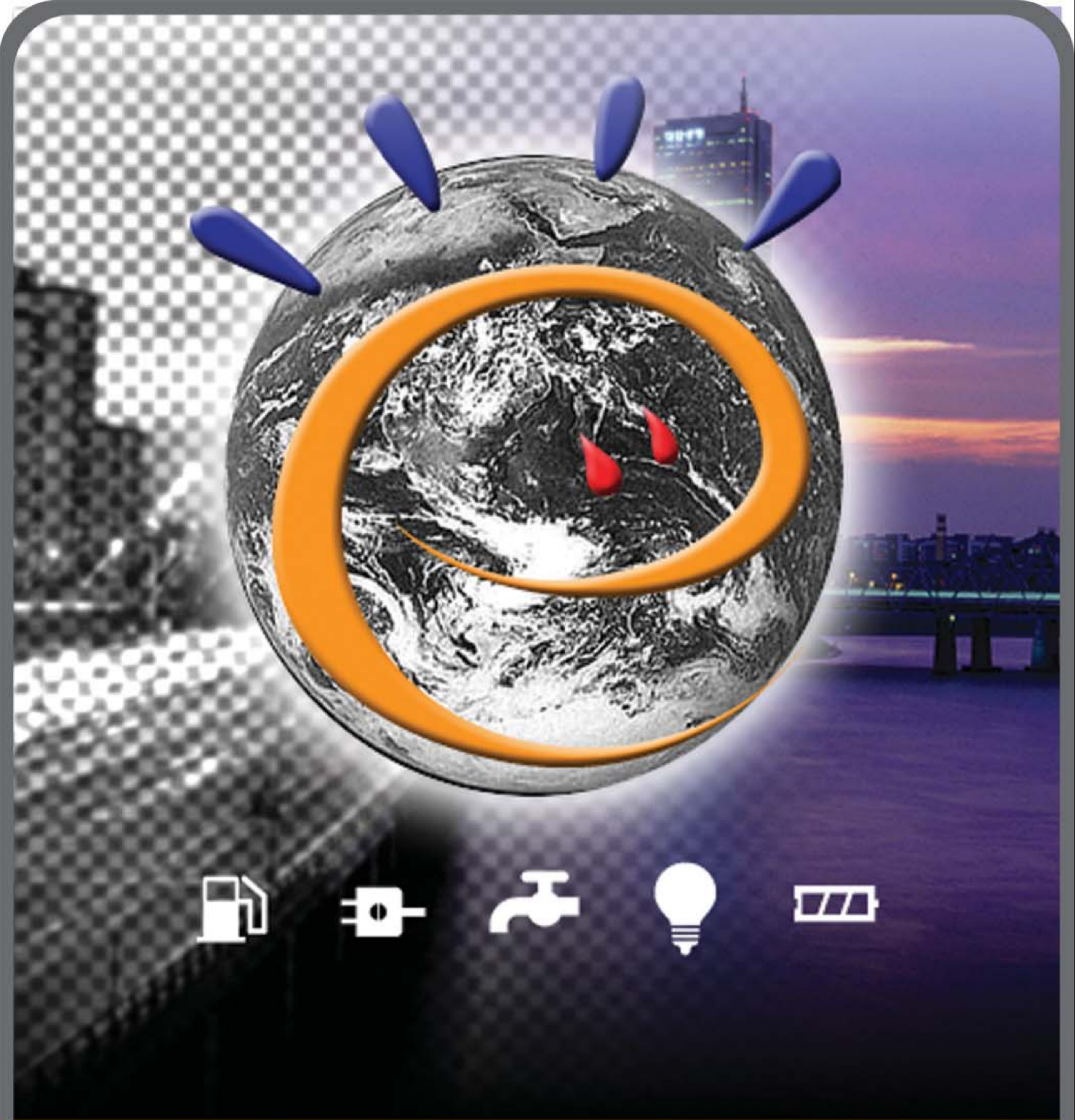
시너지협의회는 농가소득 5천만원 달성과 농업인이 행복한 국민의 능력이 되기 위해 범농협이 앞장서서 해야 할 일, 시너지사업 발굴 및 성과 창출, 당면현안 전달 및 해결방안 수립, 대전농협이 나아가야 할 방향 등 여러 과제를 가지고 열띤 토론을 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전영석 본부장은 "대전지역 범농협 시너지협의회"를 통해 우리가 최우선 해야 할 일들을 하나씩 찾아나가고, 농업인의 실익 증진, 농업 경영비절감 및 농촌일손지원 등에 최선을 다해 농가소득 5천만원 시대를 선도하는 대전농협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송병배기자



당진 동부새마을금고, 사랑의 줌どり 운동 실천 당진 동부새마을금고(이사장 광두용) 임직원들은 25일 합덕읍사무소를 찾아 어려운 이웃에게 지원해 달라며 쌀 1,100kg과 라면 100박스를 기탁했다.




고유가 시대 **이제는 에너지 절약!**

주 관 |  대전투데이


 DTN

후 원 |  한국에너지공용촉진공단 대전지사

 한국전력공사 대전충남본부


 KHFC 한국주력금용공사 대전충남지사

 주식회사 대생 ENT Environment 대표이사 손순용

 KRRI 한국농어촌공사 기술본부

 aT 농수산물유통공사 대전충남지사

 브이케이테크주식회사 www.vktech.co.kr

 논산 계룡시 교육지원청


 KRRI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

 청양군

 국립공주대학교 KONGJU NATIONAL UNIVERSITY

 계룡시

 예산군산림조합 Yesan Poultry Cooperative

 KRF 한국농어촌공사 금산지사

금산공판장G마트